

3년만에 새롭게 돌아왔다...기아 '더 뉴 스포티지' 출시

5세대 상품성 개선 모델...역동성·고급스러움 강화 디자인 변경 자동 8단 변속기로 주행성능 올려...하이브리드 모터 출력 개선

기아의 중형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가 3년 만에 바뀐 모습으로 고객을 만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는 지금까지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 누적 770만대가 팔린 기아의 시그니처 모델이다. 새로워진 스포티지는 더욱 역동적인 이미지, 고급스러움 내·외관과 더불어 기술력 면에서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달리기 성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기아는 11일 "최근 서울 성동구 북한문화공간 'XYZ 서울'에서 미디어 프리뷰를 열고 5세대 스포티지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스포티지'를 공개하고 본격 계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더 뉴 스포티지는 완전 변경 수준으로 내외장 디자인을 바꿨다. 먼저 외관 디자인은 '역동적인 도심형 SUV'라는 기존 스포티지의 이미지를 계승하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면부는 수평형 패턴의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옆에 기아 패밀리룩 '스타램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된 주간주행등(DRL)이 수직 형상으로 자리 잡았다.

측면부는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휠이 전면부 수평적인 패턴과 조화를 이루면서 역동적 느낌을 강조

했다.

후면부는 스타램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넓은 범퍼가 전면부와 통일감을 이뤘다.

실내는 송풍구를 수평적 디자인으로 변경했고, 스티어링 휠에는 더블 D컷 스타일을 적용했다.

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적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지문 인증 시스템이 도입된 콘솔은 미래지향적 느낌을 연출했다.

더 뉴 스포티지는 1.6 가솔린 터보, 2.0 LPi,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등 3종으로 출시된다.

이 중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8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돼 변속감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터 출력을 개선하는 동시에 패들 시프트를 통해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도로 상황에 따라 회생제동 단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과 부드러운 가속으로 승차감을 개선한 영유아 운전 모드도 차량에 추가됐다.

안전-편의사양도 대거 개선됐다. 더 뉴 스포티지는 국내에 출시된 기아 모델 중 최초로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주는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기아가 공개한 5세대 스포티지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스포티지' 내·외관.



(기아 제공)

를 탑재했다. 주행 시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도 신규 적용됐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 차로 유지 보조 2(LFA 2),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사양이 탑재됐다.

더 뉴 스포티지는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차별화된 'X-라인' 트림도 새롭게 출시한다.

더 뉴 스포티지의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2836만 원부터 시작하며,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

료 후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3315만 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기아는 더 뉴 스포티지 출시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전용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아는 'Open Road SUV'라는 이름의 브랜드 콘셉트 TV 광고를 시작으로 상품의 핵심 특징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디지털 영상 필름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와 협업 콘텐츠를 선보이고, 이달 중순부터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

운드 성수에서 콜라보 팝업 쇼룸을 운영한다.

기아는 더 뉴 스포티지 전용 구매 프로그램으로 현대카드 M 계열 카드로 구매 시 36개월 동안 5.3%의 금리가 적용되는 '스포티지 더블케어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은 "더 뉴 스포티지는 완전 변경에 준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담았다"며 "도심에서는 세련된 실용성, 오프로드에서는 다이내믹한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스포티지만의 매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프라이드에서 EV9까지...기아 80년 역사 돌아본다

전시 '프롬 모먼트 투 무브먼트' 내년 11월까지 강남구 'Kia360'

기아는 11일 "지난 80년 역사를 돌아보는 헤리티지 전시 '프롬 모먼트 투 무브먼트'(From Moments to Movement)를 연다"고 밝혔다. 내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브랜드 체험 공간 'Kia 360'에서 열리며 기아의 역대 기업 이미지(CI), 엠블럼, 차량, 광고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5월 끝난 '무브먼트 위드 피플'(Movement with People) 이후 기아가 두 번째로 여는 헤리티지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기아는 주요 키워드로 '대담한'(Bold), '풍요롭게 하는'(Enriching), '발전적인'(Progressive) 세 가지를 꼽고 이를 잘 드러내는 과거와 현재의 차량을 일대일로 배치했다.

'대담한' 공간에선 세계 최초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타이틀을 내걸었던 스포티지 1세대와 최근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대형 전기 SUV EV9이 전시됐다.



기아 헤리티지 전시관 내 'Progressive(발전적인)'를 표현한 공간에 전시된 '봉고9'.

'풍요롭게 하는' 공간에선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프라이드와 전기차 대중화를 이끄는 EV3를 선보였고 '발전적인' 공간에는 봉고9와 목적기반모

빌리티(PBV)를 놓았다. 전시는 별도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고 현장에서 도슨트 투어를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EV3, 독일 '2024 골든 스티어링휠 어워드' 수상

'4만 유로 미만 최고의 차' 선정

기아가 11일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3' (사진)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와 주간지 빌트 암 존탁이 주관하는 '2024 골든 스티어링휠 어워드'에서 '4만 유로 미만 최고의 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골든 스티어링휠 어워드는 1976년부터 시작된 유럽 자동차 상으로, 1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총 78대의 차량을 심사해 14개 카테고리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뽑는다.

기아는 독일 내 EV3의 출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을 받아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V3는 유럽(WLTP) 기준 605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 넉넉한 공간성, 다양한 편의사양 등을 내세워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우토빌트의 수석 에디터인 로빈 노흐는 "EV3는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로 충분한 주행거리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며 "차량, 배터리 등에



서 7년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한 구매로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V3는 유럽에서 연간 6만대 수준의 판매를 목

표로 하고 있고, 이달 26개국 출시 기자 500명 대상으로 시승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프리미엄 제품 최대 30% 할인 판매

금호타이어는 11일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가해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에서 고객 대상 할인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매장)에서 고객들을 만난다.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고객 대상으로 모바일 주유상품권(1만원 권)을 증정한다. 또 이벤트 제품 2개 이상 구매 고객에게 교체대행 및 방문장착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이어프로 매장을 비롯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행사제품 4개 구매시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한다. 행사 제품은 ▲이노비(EnnoV) Winter ▲이노비(EnnoV) PREMIUM ▲마제스티X(MajestyX) SOLUS ▲크루젠(CRUGEN) HP71 ▲윈터크래프트 WP72 ▲

윈터크래프트 WS71 등이다. 또 금호타이어의 렌탈서비스인 '또로로로 렌탈'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등록비와 렌탈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개 이상 제품을 렌탈할 경우 모바일 주유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호타이어, 타이어프로, 코세페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대규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국민들의 성원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도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코세페'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코니카 미니바 한국도요타자동차 시장이 2024 렉서스 스킬 콘테스트 부문별 1위 수상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렉서스코리아 '렉서스 스킬 콘테스트' 개최

딜러 직원 역량 강화 기술 경연

렉서스코리아는 지난 9일 '2024 렉서스 스킬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스킬 콘테스트는 딜러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해온 기술 경연 프로그램으로, 렉서스와 토요타 브랜드가 번갈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스킬 콘테스트는 '고객 행복을 위해 모두가 다 함께'를 테마로 ▲서비스 어드바이저 ▲부품 스페셜리스트 ▲세일즈 컨설턴트 ▲고객지원 ▲일반 정비 ▲판공 ▲도장 등 총 7개 부문에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54명의 딜러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렉서스 스킬 콘테스트 부문별 우승자는 ▲서비스 어드바이저 (렉서스 강남 강정호) ▲부품 스페셜리스트 (렉서스 강남 이상엽) ▲세일즈 컨설턴트 (렉서스 대전 조봉기) ▲고객지원 (렉서스 광주 이승수) ▲일반 정비 (렉서스 부산 최동환) ▲판공 (렉서스 용산 황호택) ▲도장 (렉서스 인천 김원석)이 차지했다.

강대한 렉서스코리아 부사장은 "스킬 콘테스트는 서비스와 세일즈 분야의 인재 육성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딜러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렉서스 스킬 콘테스트가 열린 토요타 트레이닝 아카데미는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 공간으로 토요타자동차의 경영철학인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TPS)'을 기본으로 딜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서비스부터 세일즈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1일 "프리미엄 모델 G클래스의 첫 전동화 모델인 '디 올 뉴 메르세데스-벤츠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이하 G580·사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디자인을 차별화한 한정판 모델 '에디션 원' 70대를 올해 먼저 선보이고, 일반 모델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G580은 4개의 바퀴 가까이 각각 개별 제어 전기모터를 장착했다. 4개 모터가 내는 최대출력은 587마력(hp), 최대토크는 118.7kgf·m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4.7초다. 118kWh 용량의 고전압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국내 인증 기준 복합 392km까지 주행 가능하다. 차량을 거의 제자리에서 회전시키는 'G-턴', 오프로드 주행 시 회전 반경을 크게 줄여주는 'G-스티어링', 지형 대처에 맞는 최적의 추진력을 유지해주는 "3단 지능형 오프로드 크롤링 크루즈 컨트롤" 등의 기능을 갖췄다. 외관은 기존 모델의 각진 실루엣을 계승하면서도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과 높아진 보닛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됐다. 벤츠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이 모델을 처음 공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